

梅軒 尹奉吉 관련 시문집의 실제와 서찰을 통해 본 고전적 교양의 수용 양상

김기엽 *

-
1. 서론
 2. 윤봉길 관련 시문집과 수록된 한시의 성격
 3. 윤봉길 서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고전적 교양의 수용 양상
 4. 결론
-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매헌 윤봉길(梅軒 尹奉吉, 1908~1932)의 문학 관련 자료 가운데, 그가 필사한 시문집과 작품을 살피고 서찰에 나타난 고전적 교양의 일면을 고찰한 것이다. 윤봉길은 일제강점기의 청년 독립운동가로서 1932년 상해 홍커우공원 의거를 통한 항일 투쟁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유년기 학습 과정 및 문학 활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윤봉길이 남긴 『한시집(漢詩集)』,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를 비롯하여 『염락(濂洛)』과 『순운대편(郇雲大篇)』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시문 필사와 창작의 의미를 추적하고 문예 수련의 목적과 그 과정을 탐색하였다.

『임추』는 1922년 윤봉길이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수학하던 시기에 필사한 자료이다. 여기에 수록된 시 중 다수가 학업을 권면하는 노학자의 작품으로 스승 성주록(成周錄)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승의 작품을 필사하며 시풍과 표현 방식을 익히려 했던 윤봉길의 학습태도를 보여준다. 또 『옥

* 광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 sinchay@hanmail.net

타』에 수록된 작품들 역시 지역 노학자의 시문이 실려 있어, 윤봉길이 문인 집단의 문학적 교류 속에서 전통 시문을 습득했음을 알 수 있다.

『염락』과 『순운대편』은 송대 도학자들의 시문과 서찰의 투식을 필사한 자료로, 한문 문장 연습과 서찰 형식의 체득, 그리고 유학적 언어 감각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고전 수사의 기반 위에서 윤봉길은 1930~1932년에 작성한 서찰을 통해 근대적 자아 인식과 독립의 실천 의지를 정제된 문장으로 표출하였다. 윤봉길이 남긴 여섯 통의 서찰은 고전적 문체와 근대적 자아 인식, 시대적 실천의지를 담은 기록물로서, 개명 선언·효의 실천·가족 연민·독립운동 결단의 내면이 서찰 속에 드러나 있다.

이 연구는 윤봉길 관련 텍스트를 통해 윤봉길 문학의 기초를 형성한 유학적 전통과 고전 교양의 수용 과정을 조명하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실천적 문학 정신을 고찰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주제어: 윤봉길, 한시, 시문집, 서찰, 고전 교양, 독립운동

1. 서론

일제강점기라는 민족 수난의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윤봉길(尹奉吉, 1908~1932)은 매우 강렬하고 상징적인 존재로 기억된다.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커우공원(虹口公園)에서 일제의 군부 요인을 향해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의 의거는 단순한 무력 투쟁을 넘어선 자신을 바쳐 대의를 이룬 근대적 의인상(義人像)의 구현이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한국 청년의 항일 의지를 각인시킨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는 단지 민족운동 인물의 한 사람이 아니라, 조국의 자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몸으로 증명한 실천적 사상가이기도 했다.

윤봉길은 7세부터 백부가 운영하는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웠고 보통학교를 자퇴한 뒤에는 최은구(崔殷九, 1887~1973)가 설립한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였다.¹⁾ 14세인 1921년부터는 오치서숙(烏峙書塾)에 들어가서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1876~1963)으로부터 전통 한문 교육을 이수하며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다. 이 시기에 필사한 주변인들의 한시와 국한문 서찰은 그러한 교양의 실천적 발현이자 내면화된 사유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민족적 수난이라는 현실에 눈뜨기 이전의 청년 윤봉길은 시와 문장을 통해 세상과 관계 맺고자 했으며, 그것은 단지 문필의 소산이 아니라 자기 수양과 시대 인식, 도덕적 결단으로 나아가는 통로였다. 더욱이 그가 필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문 시문과 서찰은 전통적 교양과 현실 인식의 표명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창출된 귀중한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의 글에서는 전통 유학의 잔영과 더불어, 독립운동가로서 현실을 직시한 고뇌와 결의가 함께 녹아 있다.

그동안 윤봉길에 대한 위상은 주로 홍커우공원 의거에 관한 중국의 인식, 독립운동가로서의 행적, 농촌 계몽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²⁾

1) 김상기(2018a),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매헌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 -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14면.

2) 고요한(2009), 「윤봉길(尹奉吉)의 충의(忠義) 청소년(靑少年) 교육을 위한 내러티브로서」, 『청소년과 효문화』 제13권,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43~70면; 김상기(2018b), 「尹奉吉 上海義學의 국내외적 영향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사연구소, 155~185면; 김상기(2024), 「윤봉길의 수학과정과 농촌계몽운동」,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8~37면; 김재욱(2016), 「尹奉吉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 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26~258면; 김학준(2008), 『(항일 불꽃으로 산화한)매헌 윤봉길』, 동아일보사; 김학준(2022), 『매헌 윤봉길 의사 평전: 선구적 농민운동가·독립운동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박해진·박설매(2022), 「중국에서 윤봉길 사건의 주제의식 변천 연구」, 『한국문학논총』 91, 한국문화회, 353~382면; 이성섭(2024),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업적」,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8~26면.

그가 남긴 문학적 자취, 특히 한문으로 구성된 시문과 서찰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이 미치지 못하였다. 윤봉길의 시문과 서찰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가 넘어서야 윤봉길 관련 시문 번역을 비롯하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 사업회에서 전집이 간행되면서 일정한 기반이 마련되었다.³⁾ 이후 윤봉길의 행적에 관한 자료집과 관련 한시 재번역, 친필 자료⁴⁾ 등의 번역서도 잇따라 출간되었다. 이러한 간행물들은 윤봉길이 남긴 문헌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공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통해 자필 한시와 서찰, 주변 인물들과의 교류 양상을 담은 시문이 국한문 혼용체와 정통 한문 문장으로 정리·해제되면서 학술 연구의 1차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윤봉길 관련 한시는 『한시집』,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 등의 시문집에 수록되어 전하고, 그 밖에 윤봉길이 『염락풍아(濂洛風雅)』를 선취하여 필사한 『염락(濂洛)』이 남아 있다. 이 중 200여 수가 수록된 『한시집』은 방대한 편수에도 불구하고 필체 및 내용을 근거로 창작자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서 『한시집』과 『옥타』 등의 시문집에 수록된 작품 중 상당수가 윤봉길의 연대기나 인적 관계, 시풍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1895년 또는 1896년의 간지가 시체에 적힌 작품, 만년의 감성을 담은 시, 타인을 위해 창작한 만시(輓詩) 및 축수시(祝壽詩), 그리고 윤봉길과 관계가 희박한 인물과의 교류를 전제한 작품군 등을 근거로 실제 윤봉길의 자작으로 보기 어렵다

3) 진영미·김승일 역(2004), 『시인 윤봉길과 지인의 서정시 340수』, 역사공간; 매헌 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2012), 『매헌 윤봉길전집』 1~9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4)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편(2022), 『불멸의 영웅 매헌 윤봉길 의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김현국·김송자 역(2023), 『매헌윤봉길의사 친필: 염락 순운대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김현국 역(2024), 『매헌윤봉길의사 한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고 판단한 것이다.⁵⁾

또 이러한 논점을 이어받아 윤봉길의 한시집과 유묵에 관한 이후의 연구에서 새로운 자작시를 발굴하기도 하고,⁶⁾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에 수록된 서찰 일부의 필사 오류와 진위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윤봉길이 사용한 어휘·문체·문장부호·단락 구성 등 서사 방식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체적 실험성, 내면의 갈등과 문학적 감수성을 포착하였다.⁷⁾ 시문과 서찰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윤봉길의 자작시와 서찰에 나타난 고뇌와 결단·자기 성찰의 태도를 입체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윤봉길 관련 연구는 꾸준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그가 남긴 시문과 서찰에 내재된 고전적 문식성(文識性)과 한문학에 기반한 유학적 사유, 그리고 청년 지식인으로서의 사상 형성은 다각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전통적 한문 교양을 내면화한 윤봉길의 시문은 근대 전환기의 사유 방식과 언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또한 국한문 서찰은 전통적 형식과 표현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식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자아 각성의 흔적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문필 활동을 넘어선 사상적 실천의 흔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증 가능한 시문집과 서찰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이 지닌 교양적 기반과

5) 진영미(2004),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문교육논집』 제23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71~185면.

6) 김상기(2018a), 앞의 논문, 11~36면. 윤봉길의 자작으로 『옥타(玉唾)』 뒤표지에 적힌 「모수자천가(毛遂自薦歌)」를 새로이 발굴하고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7) 심경호(2018), 「윤봉길 의사의 산문에 대하여」, 『매헌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 -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69~88면; 심경호(2024), 「윤의사의 문학에 대하여 - 매헌 윤봉길 서찰 정독」,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74~85면.

사상적 전환을 해명하려는 문학적 접근이 요청된다.

이 연구는 윤봉길의 시문집을 검토하고 그의 한시와 주변 인물들의 한시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윤봉길의 문학적 수양의 일면과 시문의 수용 양상을 살펴면서 국한문 서찰을 중심으로 유학적 학문의 자취와 시대적 고뇌가 담긴 그의 내면을 조명하고자 한다. 윤봉길의 시문과 서찰을 고찰하는 과정은 전통 지식 체계와 근대 민족운동이 어떻게 문학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윤봉길 관련 시문집과 수록된 한시의 성격

1) 윤봉길이 필사한 시문집의 실제

현재 전하는 윤봉길의 시문집 가운데 일부는 필체와 문체, 구성 방식에서 자필 또는 창작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다수는 단순 필사 혹은 주변 지인들의 창작물 이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자에 관해서는 『염락풍아(濂洛風雅)』를 선취하여 필사한 『염락(濂洛)』을 제외하고 『한시집(漢詩集)』,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한시집』·『임추』·『명추』·『옥타』는 일부 면에 필사 시기와 창작 경위가 밝혀져 있어, 기존 연구에서 밝힌 윤봉길과 생존 연대가 맞지 않은 점, 교유한 사람들의 나이가 많은 점, 연배가 있는 이의 작품으로 보이는 점, 시풍이 윤봉길의 삶과 거리가 있다는 점⁸⁾ 등을 제외하고도 윤봉길의 자작시나 필사 목적

8) 진영미(2004), 앞의 논문, 175~179면.

및 주변인의 창작 동인(動因)을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들 시문집에 수록된 한시 가운데 윤봉길 본인이 창작했거나 지인의 창작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핀다. 나아가 작품에 나타난 창작 배경을 검토하면서 각 시편의 표현 방식, 사유 구조, 정서적 흐름 등을 문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윤봉길의 한시 작품을 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의 자작으로 확인 가능한 시편을 엄밀하게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시집』, 『임추』, 『명추』, 『옥타』 등의 시문집은 원전 자료를 토대로 이미 두 차례 번역이 이루어져 있다.⁹⁾ 다만 이 두 번역서에서 『한시집』의 21번째 작품 「만조를 찾아 회포를 풀다(訪晚樵敘懷)」부터 28번째 작품 「늘그막에 노닐며(耆遊)」까지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5), 『한시집』(3~4면)에 없는 작품들이므로 자료적 검토가 필요하다.¹⁰⁾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윤봉길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실려 있다. 만년의 나이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¹⁾

9) 진영미·김승일 역(2004), 앞의 책; 김현국 역(2024), 앞의 책. 이 연구에서 인용한 한시의 번역은 두 번역서를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원문을 가하였다.

10) 마찬가지로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의 『한시집』 도록의 75~76면에도 원전 자료에 없는 시편이 실려 있고, 이를 번역한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의 『한시집』 번역 145~152면도 원전 자료에 없는 작품들이다. 이는 두 번역서를 비롯한 전집의 번역이 『매헌윤봉길전집』 제1권의 『한시집』 도록을 토대로 번역한 결과로 짐작된다. 『한시집』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의 원전 전시자료와 번역 자료의 상호 대조 및 재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11) 이 연구에서 인용한 해당 작품의 순번과 면수는 진영미·김승일의 번역서(2004)를 수정·보완한 김현국 역(2024)의 번역서에 기입된 작품의 순번과 면수를 따랐다.

[표 1] 『한시집』에서 노년으로 표현된 작품

연 번	내용	출처 및 제목	형식
1	늘그막에는 벗들이 가장 그리운 법이라, 잠시 떨어져 며칠만 지나도 오래된 듯하네. 〔暮年朋友最相思, 暫別數宵如昔時〕	『한시집』 8, 「暮秋潒寂而坐 有隣人傳晚樵席上二三友所詠詩軸 故玩味熟詠 因構二首詩 題其軸尾以送」	7언 율시
2	새로 지은 시 다시 보니 깊은 맛 감도는데, 노쇠한 얼굴 위로 붉은 노을 비치네. 〔更讀新詩深着味, 烟霞色上衰顏〕	『한시집』 9, 「其二」	7언 율시
3	애석하게도 친구가 지금은 늙었지만, 시는 이백만큼 글씨는 왕희지만큼 대단했지. 〔可惜故人今抵老, 詩鳴白也筆羲之〕	『한시집』 30, 「又」	7언 율시
4	소나무와 대나무도 정정하게 서 있으니, 만년에 서로 찾아 정을 나누는 게 최고이지. 〔老松幽竹立亭亭, 晚節相尋最記情〕	『한시집』 32, 「蓮溪家老會」	7언 율시
5	덧없는 세상 공명은 모두 개미의 꿈이요, 늘그막에 산수 좋아하니 용먼거사 같네. 〔浮世功名皆蟻夢, 晚來山水是龍眠〕 몸은 비록 늙고 둔하나 마음 아직 건강하여, 술 들고 벗을 찾아 힘들여 찾아왔네. 〔身雖衰拙心猶健, 携酒尋朋着力前〕	『한시집』 33, 「訪晚樵述懷」	7언 율시
6	온갖 감회 삭이려는데 다시 생각이 나니, 어느덧 사십구 년을 잘못 살았구나. 〔百感消除意更移, 居然四十九年非〕	『한시집』 127, 「元日」	7언 율시
7	한평생 시와 거문고를 벗 삼아, 가는 곳마다 잠시도 헤어짐이 없었네. 〔一生詩伴與桐君, 到處相隨未暫分〕	『한시집』 151, 「眞語」	7언 율시

200여 수의 『한시집』 작품 중 [표 1]에 정리한 시편들은 여러 편에서 노년 또는 노년기의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표 연번 6의 작품 “온갖 감회를 삭이려는데 다시 생각이 나니, 어느덧 사십구 년을 잘못 살았구나[百感消除意更移, 居然四十九年非]”는 작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뉘우치는 정서를 보여준다. 이는 『회남자(淮南子)』 「원도훈(原道

訓)에 나오는 거백옥(蘧伯玉)의 고사 “나이 오십에 49년의 잘못을 깨달았다[年五十而知四十九年非]”를 인용한 표현으로, 작자의 연령대가 최소 40대 후반 이상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한시집』의 일부 작품들은 윤봉길이 선대 학자의 작품을 필사한 자료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표 2] 『임추』에서 노학자로 표현된 작품

연 번	내용	출처 및 제목	형식
1	두세 명의 학생들이 모두 청춘들인데, 진정 홍의에 물들까 이미 몸을 단속했네. 〔兩三學伴盡青春, 眞染紅衣已束身〕	『임추』 5, 「贈學伴」	7언 율시
2	사람들이 글을 물으러 날마다 모여 따르니, 공부하는 사람들 양성하는 의미 두텁도다. 〔客求墨妙日相從, 學業養成意味濃〕	『임추』 8, 「又」	7언 율시
3	본다고 막는 이 없는 저녁 풍경 시로 지어, 한 글자씩 아이들에게 창호지에 쓰게 했네 〔晚收風物無禁取, 一一教兒記入窓〕	『임추』 10, 「有感」	7언 율시
4	물려받은 책들 이곳 서가에 잔뜩 있어서, 그대들 한가할 때 보라고 책상에 쌓아 뒀네. 〔詩禮蒔藏此一樓, 使君閑看積床頭〕 책을 읽어 벼루 받을 부지런히 가꾼다면, 풀어놓은 배 흘러가듯 벼슬길이 순탄하리. 〔勤業硯田携卷讀, 順風官海放舟流〕	『임추』 11, 「自述」	7언 율시
5	찬란하던 젊은 시절이 어제와 같은데, 성성한 백발 모습이 다시 금년이라네. 〔燦燦青衿如昨日, 蕭蕭白髮又今年〕	『임추』 12, 「逢友閑吟」	7언 율시
6	찾아오는 길 봉우리 몇 개 돌아왔을 텐데, 밥 한술 같이 먹었으나 술 대접은 못했네. 〔轉尋路出數峰回, 盃盒相携不供杯〕 덕 없이 그 자리 있기 참으로 부끄럽더니, 마음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게 기특하구나. 〔眞慚無德其筵坐, 可愛有心此處來〕	『임추』 17, 「病臥本家感學伴携卷」	7언 율시
7	서당에서 마음과 손 가다듬고 단정히 앉아, 의관 정제한 그대들 모두 아름다운 때로세.	『임추』 18, 「贈學伴」	7언 율시

	〔書室正心拱坐危, 衣冠濟濟摠芳時〕 상세히 음미하여 관통함이 아직은 미흡하니, 더디고 더딤을 한탄하며 학업에 매진하게. 〔詳味貫通今未得, 追進學業恨遲遲〕		
8	병중에 밤잠까지 설치서 견디기 어려우니, 늙어 가는 덧없는 인생 본래 이런 것인가 〔難堪病席夜無眠, 老去浮生自此然〕	『임추』 20, 「病中無眠自歎」	7언 율시
9	쇠한 노인은 백발 서러워하며 비추어 보고, 미녀는 창가에서 눈썹 그릴 때 마주한다네. 〔衰老憑看悲髮席, 佳妓對坐畫眉窓〕	『임추』 22, 「面鏡」	7언 율시
10	저갓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마을이라, 한두 명의 학생과 짝하여 책 보기를 즐기네 〔市朝遙隔村猶僻, 樂伴看書一二生〕	『임추』 24, 「秋日卽事」	7언 율시
11	우리 공자님의 도를 배워서, 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른다네 〔學吾夫子道, 教養是青年〕 삼천 명의 문인은 말하지 말아라, 칠십 명을 공경하고 흠모한다네 〔莫說三千客, 仰望七十人〕	『임추』 30, 「自述」	5언 율시
12	올해 내 나이 마흔여덟인데, 생각해 보면 세상일이 다 그렇고 그렇더라. 〔六八我年有此年, 算來事事摠然然〕	『임추』 34, 「壬戌除夕」	7언 율시

윤봉길은 1921년(신유)에 오치서숙(烏峙書塾)에 가서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1876~1963)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임추(壬樞)』¹²⁾는 그가 오치서숙에 있을 때 필사한 자료이다. 『임추』는 윤봉길이 필사한 한시 가운데 노년의 정서와 훈학(訓學)적 표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편들이 수록된 시문집으로, 56수 중 많은 작품에 시를 통한 수양과 교육적 목적의 의도가 엿보인다.¹³⁾

12) 김현국 역(2024), 앞의 책, 6~7면. 『임추(壬樞)』는 임술년(壬戌年, 1922)에 지은 시 또는 임술년에 공부한 시라는 의미로 보인다.

13) 예컨대 [표2]의 연번 3에서 시를 “한 글자씩 아이들에게 창호지에 쓰게 했네[——教兒記入窓]”나, 연번 6의 “물려받은 책들 이곳 서가에 잔뜩 있어서, 그대들 한가할 때 보라고 책상에 쌓아 뒀네[詩禮滿藏此一樓, 使君閑看積床頭]”라는 구절에서 후학

한편 연번 12 「임술년 설달 그믐〔壬戌除夕〕」은 “올해 내 나이 마흔여덟인데〔六八我年有此年〕”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를 직접 밝히며 노년에 접어든 문인의 회고적인 태도를 드러내었다. 앞서 『한시집』에서 거백옥(蘧伯玉)의 고사를 인용하여 50에 가까운 나이를 표현한 「정월 초하루〔元日〕」라는 작품을 살핀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료의 표제에서 밝혀진 임술년(壬戌年, 1922)은 윤봉길이 오치서숙(烏峙書塾)에 가서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1876~1963)에게 수학했던 시기였고, 임술년 설달 그믐은 양력으로 1923년 2월 15일이므로 성주록의 나이 48세인 해가 된다. 실제로 스승 성주록의 입장에서 수학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윤봉길에게 주는 시로 보아도 무방한 작품들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임추』라는 표제에 담긴 뜻과 수록된 시편들이 학당이나 서숙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창작 주체가 젊은 세대에게 학문과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년의 문인이라는 점, 성주록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윤봉길이 자신을 가르친 성주록의 작품을 감상, 소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스스로의 교육 실천과 고전 수양의 자료로 삼기 위해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 3] 『명추』에 교유의 자취가 담긴 작품

연번	내용	출처 및 제목	형식
1	아름다운 명절에 어찌 객을 그냥 보내리오, 서로 손잡고 걸음걸음 담교놀이라도 해야지. 〔佳節其何浪渡客, 踏橋步步手相携〕	『명추』 9, 「上元」	7언 율시

을 향한 교육적 권유가 드러난다. 연번 11의 작품 또한 “우리 공자님의 도를 배워서, 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기른다네〔學吾夫子道, 教養是青年〕”라는 표현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자 하는 교육자의 사명을 밝혔고, “삼천 명의 문인은 말하지 말아라, 칠십 명을 공경하고 흠모한다네〔莫說三千客, 仰望七十人〕”라는 구절은 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제자를 기르고자 하는 스승의 신념을 보여준다.

2	그대는 친구가 아니라 곧 나의 스승이니, 시는 이태백 같고 글씨는 왕희지라네. 〔子非吾友即吾師, 詩同白又筆羲之〕	『명추』 10, 「贈金鍾潤」	7언 절구
3	나의 청광함에 짝하는 일없는 나그네, 오래도록 경치 보며 정을 이기지 못하네. 〔伴我淸狂無事客, 逗遛覽物不勝情〕	『명추』 11, 「春日舒懷」	7언 율시
4	다행히 지기를 만나서 화락하고 즐거운데, 빙월 같은 내면 인품도 비추어 통했으면. 〔幸逢知己陶陶樂, 冰月暗魂互照通〕	『명추』 12, 「有朋訪春」	7언 율시
5	고상한 벗들이여 연사모임 말할 것 없네, 풍류 있는 곳 어디든 동원이 아니겠나. 〔高友莫言蓮社會, 風流何處不東園〕	『명추』 15, 「閑淸」	7언 율시
6	마음은 늘 위험한 다리 건너듯 해야 하니, 세상 많은 갈림길에선 걸가지 요란하다네. 〔持心恒似過危橋, 世事多岐擾亂條〕	『명추』 18, 「勤學」	7언 율시
7	맑고 한가하게 기를 양성하여 글을 쓰니, 가슴이 넓은 바다 만 리 끝까지 펼쳐지네. 〔著書養氣淸閑事, 胸臆汪洋萬里涯〕	『명추』 20, 「再帖」	7언 율시

『명추(鳴樵)』¹⁴⁾에 수록된 20여 수의 작품은 앞서의 『한시집』이나 『임추』와 달리, 노년임을 밝힌 내용이나 학문적 훈계보다는 벗과의 교류와 감성을 노래한 시편들이 많다. 예컨대 “아름다운 명절에 어찌 객을 그냥 보내리오, 서로 손잡고 걸음걸음 담교놀이라도 해야지〔佳節何堪送客過, 攜手徐步踏橋多〕”라는 시구는 한가로운 풍류와 따뜻한 정을 노래한 것이며, “그대는 친구가 아니라 곧 나의 스승이니, 시는 이태백 같고 글씨는 왕희지라네〔君非朋友是吾師, 詩似太白書羲之〕”라는 구절은 우정 이상의 존경심과 경모(景慕)의 정서를 드러낸다.

『명추』의 표지에 적힌 “부자탄후 이천사백칠십오년 갑자(夫子誕後 二

14) 김현국 역(2024), 앞의 책, 6~7면. 『명추(鳴樵)』 표제는 두보(杜甫)의 「황하(黃河)」에 나오는 구절 “황하 북쪽 언덕의 해서 지방 군인들이 북을 치고 종을 울리니 천하에 들리네〔黃河北岸海西軍 椎鼓鳴鐘天下聞〕”에서 가져온 것이다. 천하를 울릴 만한 좋은 시 또는 그러한 시를 짓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은 제목으로 보인다.

千四百七十五年 甲子)”는 공자 탄생 2,475년째 되는 해인 1924년(갑자), 곧 윤봉길이 17세이던 해에 해당한다. 『명추』에 수록된 「을축년 설날 아침에〔乙丑元朝〕」 작품을 통해 1925년까지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는 그가 오치서숙에서 성주록에게 한문과 유학을 배우던 시기이다. 『명추』에 수록된 작품은 윤봉길의 작품으로서¹⁵⁾ 벗과 나눈 교유를 노래한 시편으로 볼 수 있고, 한시 창작 연습, 혹은 벗들의 작품을 정리하기 위해 필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명추』에는 젊은 한학자가 한시 필사를 통해 인격 수양과 문학 학습을 병행했던 실천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표 4〕 『옥타』에 명시된 작자의 이름과 노학자의 작품

연 번	내용	출처 및 제목	형식
1	그대의 고상한 용모 보니 세속을 벗어났고, 나에게 요구했던 시 빛은 모두 상환하였네 〔看君高表出塵間, 詩債要余罄償還〕	『옥타』 1, 「看君高表出塵間」 혜정(蕙亭) 강치현(姜致憲)	7언 율시
2	어진 사람 반드시 장수하여 신선이라 불리니, 스승님께서도 끝없이 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仁人必壽壽稱仙, 黃耆無疆又永年〕 문하의 제자들이 정성 다해 뜻을 이어가니, 축하의 술잔 올리러 많이 참례하였답니다 〔門弟誠深能繼志 獻觴祝福贊成然〕	『옥타』 2, 「仁人必壽壽稱仙」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7언 율시
3	지난 갑진년엔 청산에 흰 구름 있었을 텐데, 금년 갑진년 사월에는 비가 오다 맑아졌네. 〔古甲靑山雲白地, 今辰四月雨晴天〕	『옥타』 3, 「德潤身康不羨仙」 혜정(蕙亭) 강치현(姜致憲)	7언 율시
4	인간 세상에 적선이 내려와 늙지 않는 건가, 환갑에 벽도를 먹으면 적송자 나이 될까 〔不老人間降謫仙, 碧桃花甲赤松年〕	『옥타』 4, 「不老人間降謫仙」 혜정(蕙亭) 강치현(姜致憲)	7언 율시
5	면천의 차고 맑은 시냇물 휘돌아 흐르는데,	『옥타』 6, 「沔流寒澗練回	7언

15) 김상기(2018a), 앞의 논문, 22~27면.

	여기까지 온 그대 보니 마음이 서로 통했구려 〔沔流寒澹練回川，到此逢君情緒連〕	川 혜정(蕙亭) 강치헌(姜致憲)	율시
6	너의 모습 알고 싶으면 돌아가 이것을 보아라, 가을 물처럼 맑아서 마음도 깨우칠 수 있으니. 〔欲識爾容歸看此，淡如秋水可心醒〕	『옥타』 39, 「面鏡」	7언 율시
7	허물없는 교분으로 오래 공경하며 정이 깊어,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네 〔誼深久敬契無間，不忍相離去復還〕	『옥타』 44, 「혜정, 만초, 죽 초를 만나 노느라 붓을 놓았 다가 나중에 짓다〔逢蕙晚竹 好遊却筆追後吟〕」	7언 율시

『옥타(玉唾)』라는 표제는 ‘옥 같은 침방울’을 뜻하지만, 이는 고전적 문학 인식과 감상의 태도를 반영한 상징적 표현이다. 이백(李白)은 “그대의 침방울이 구천에서 떨어지니, 바람 따라 모두가 주옥이 되도다〔咳唾落九天 隨風成珠玉〕”라고 표현하며, 시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석처럼 귀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¹⁶⁾ 침방울(唾)은 문인의 말이나 글을 비유한 표현으로, 스승이나 타인의 훌륭한 말씀이나 글귀를 해타(咳唾)라고 높여 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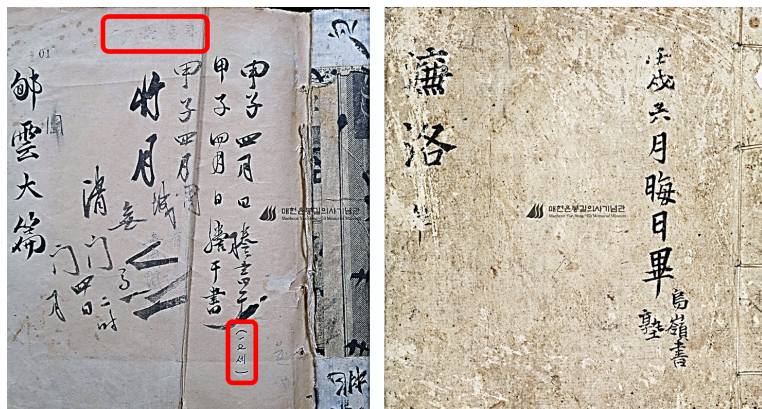
46수의 시편이 수록된 『옥타』에는 일부 작품에 혜정(蕙亭) 강치헌(姜致憲),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만초(晩樵) 서만협(徐萬協), 죽초(竹樵) 맹원술(孟元述) 등 당시 지역 노학자들의 호가 기록되어 있다. 위 표에서 “어진 사람 반드시 장수하여 신선이라 불리니, 스승님께서도 끝없이 오래 사시기를 빕니다〔仁人必壽壽稱仙，黃耆無疆又永年〕”라는 구절은 윤봉길의 스승 성주록이 강혜정의 장수와 덕을 기원하며 지은 축시로 보인다. 강혜정이 읊은 “지난 갑진년엔 청산에 흰 구름 있었을 텐데, 금년 갑진년 사월에는 비가 오다 맑아졌네.〔古甲靑山雲白地，今辰四月雨晴天〕”에서 선(仙)·년(年)·전(全)·천(天)·연(然) 등 같은 운자로 지어진 작품들은 강혜정의 1904년 환갑을 맞아 지어진 시들임을 알

16) 『이태백집(李太白集)』 권3, 「첩박명(姜薄命)」

수 있다. 이는 모두 윤봉길의 태어나기 전의 작품들인데, 윤봉길이 수학하면서 그가 존경하는 인물들의 ‘훌륭한 시문〔玉唾〕’을 모아 정리했음을 의미한다.

2) 『염락(濂洛)』과 『순운대편(郇雲大篇)』의 필사 목적

윤봉길이 시문집을 필사한 이유가 자신의 공부를 겸하여 한시 창작 시 참고하기 위한 목적, 또는 스승이나 존경하는 학자의 글을 소장하기 위한 것임은 당시에 필사한 다른 자료들이 참고가 된다. 윤봉길이 필사한 『염락(濂洛)』과 『순운대편(郇雲大篇)』은 그의 한문 문식의 필요성과 문학 학습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두 자료 모두 자작이 아니라 타인의 시문이나 서찰 투식을 옮겨 적은 것이지만, 필사의 방식과 시기, 내용 구성을 통해 윤봉길의 문학적 지향과 학습 의도를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순운대편(좌), 염락(우) 표지

『염락(濂洛)』은 송대 성리학자 48인의 시를 모은 『염락풍아(濂洛風雅)』의 일부로, 윤봉길의 임술년(壬戌年, 1922) 6월에 필사한 것이다. 이 시기는 윤봉길의 나이 15세에 해당한다. 『염락풍아』는 조선 유학자들이 애독하며 시문 수양의 전범으로 삼은 책으로 조선 후기까지 강독되고 모방되었던 중요한 시문 자료였다. 조선 시대의 많은 문인이 『염락풍아』를 필사하거나 빌려 읽었으며, 그 시문에 감응하여 독후시(讀後詩)를 남긴 기록이 여러 문집에 확인된다. 이는 『염락풍아』의 시들이 단지 시적 미감의 모범이 아니라, 도학적 사유와 수양을 담은 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¹⁷⁾

윤봉길의 『염락』 필사는 이러한 맥락 위에 놓일 수 있으며, 고전적·전통적 시풍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자신의 문예 능력을 기르려는 의도, 그리고 성리학적 교양의 내면화를 위한 학습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이 겹쳐졌다고 보인다. “임술 유월 회일 필, 오령서숙(壬戌六月晦日畢 烏嶺書塾)”이라는 글귀는 기록한 시기와 장소, 윤봉길의 자료 필사 의도를 보다 구체화해 준다.

『순운대편(郇雲大篇)』이라는 표제는 당나라 명필 위척(韋陟)의 일화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문장의 아름다움과 서체의 품격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신당서(新唐書)』 「위위곽열전(魏韋郭列傳)」에 따르면, 위척은 순공(郇公)에 봉해진 인물로, 서찰을 쓸 때마다 시첩(侍妾)에게 대신 쓰게 하고 본인은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 ‘척(陟)’ 1자만을 직접 썼다고 한다. 이때 그는 “내가 쓴 ‘척(陟)’ 자가 마치 다섯 송이 꽃 같은 구름과 같다(所書陟字, 若五朵雲)”고 말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그의 글씨를 ‘순공오운체(郇公五雲體)’라고 불렀다. 여기서 ‘순(郇)’과 ‘운(雲)’

17) 김기엽(2023), 「조선 후기 『濂洛風雅』 讀後詩에 나타난 道學詩의 典範과 詩想의 계승 양상」, 『고전과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33~62면.

두 글자를 취해 『순운대편』이라는 명칭을 만든 것이다. 이는 ‘다섯 송이의 꽃 같은 구름’이라는 뜻의 오타운(五朵雲)과 연결되는데, 윤봉길이가 서찰 문집을 필사한 사실은 취미적인 필사가 아니라 문장의 품격과 수사적 표현을 체득하려는 의도와도 깊이 연관된 것이다.

표지에 “갑자사월일 등서우(甲子四月日 謄書于)”라고 쓰여 있고, 이 구절의 하단에 “一七세”라는 글씨가 괄호 안에 적혀 있다. 또 상단에 “17歲孟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필사를 시작한 시기가 1924년 봄, 윤봉길의 나이 17세에 오치서숙에서 수학하던 때임을 짐작할 수 있다.¹⁸⁾

『순운대편』은 시문 수창(酬唱)과 평가를 요청, 시회(詩會) 기약, 방문 의사 전달 및 방문 요청, 처세나 사안에 관한 조언, 학문 방향 및 공부한 내용의 질정, 수연에 축수시 전달, 스승의 장례 참석, 생활 자금 요청, 화해 요청, 화해 분양, 혼사 주선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신인은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다양한 관계에 있는 수신인에게 보내는 안부 및 서두와 결미의 투식이 갖추어져 있다. 고사를 활용한 서술 또한 빈번하게 보이는데, 이로 보아 서찰의 문장 구조와 모범이 되는 문체를 참고하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며, 서찰을 작성할 때 문투(文套)를 익히기 위한 모델 텍스트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자료는 모두 10대의 윤봉길이 문장을 익히고 고전적 교양을 내면 화해 나가던 과정에서 필사한 것으로, 수집이나 감상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 수양과 창작 연습의 실질적 기반을 이루는 자료였다. 『염락풍아』와 같은 도학적 한시를 필사하고, 서찰 형식을 모범 삼아 필기한 『순운대편』의 편집 의도를 고려할 때, 윤봉길이 문장을 도덕적 실천과 사유 표

18) 김현국·김송자 역(2023), 앞의 책 해제에서는 필사 시기를 15세로 추정했으나, 출생 연도(1908)를 기준으로 하면 ‘갑자년(甲子年)’은 1924년으로 윤봉길의 나이 17세에 해당한다.

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한시집』·『임추』·『명추』·『옥타』 등의 시문집을 필사한 목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3) 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과 윤봉길의 자작시

앞서 살핀 『한시집』·『임추(壬樞)]』·『명추(鳴樞)]』·『옥타(玉唾)]』의 시문들은 대체로 작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윤봉길이 아닌 주변 인물들의 창작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¹⁹⁾ 이 절에서는 필사 자료 중 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시편을 중심으로, 그 창작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문집 중 『한시집』은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만큼 특정 인물의 자, 호, 이름, 집단명이 많이 등장한다. 이 『한시집』 곳곳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석정(石亭)이다. 석정과 관련하여 연이어 수록된 작품²⁰⁾ 중 「재차 첩운하여 당운에게 화답하다(再疊和塘雲)」의 ‘당운(塘雲)’의 의미는 이어서 실린 「석정을 찾아서 함께 읊다(訪石亭共吟)」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동쪽에 살고 친구는 서쪽에 사는데

主人東住故人西

19) 진영미(2004) 등 기존 연구의 지적처럼, 『한시집』 136번째에 수록된 「일본인 서등조(西藤助)와 작별하며 주다(贈別日本人西藤助)」와 『임추(壬樞)]』 55번째에 수록된 「삼가 대동사문회의 시에 차운하다(敬次大東斯文會韻)」은 모두 윤봉길의 자작시로 보기 어렵다. 일본인 서등조(西藤助)에게 준 시에서 “온갖 꽃들이 무성한 먼천 고을이 그대가 온 이후 가장 환하게 핀 듯하네[百花繁盛沔湯城 最是公來以後明]”라는 구절은, 친일 인사에 대한 찬양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임추』에 실린 대동사문회(大東斯文會)의 차운시는 윤봉길의 시라고 보기 어렵다. 대동사문회는 총독부 주도로 조직된 친일 유람기관이기 때문이다.

20) 매현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5), 『한시집』 48면; 진영미·김승일 역(2004), 앞의 책, 226~231면; 김현국 역(2024), 앞의 책, 225~230면.

오고 감이 잦아 길을 헛갈릴 일 없네	來去常多路不迷
일찍이 네모난 못의 맑은 물 같다고 인정했	曾許方塘如澹水
청니판에서 나온 기이한 돌을 운 좋게 얻었네	幸逢奇石出青泥

...하략 ...

위 인용문은 「석정을 찾아서 함께 읊다〔訪石亭共吟〕」의 수련과 함련이다. 동쪽에 사는 작자가 서쪽에 사는 석정을 찾아가서 읊은 시에서 함련은 석정의 성품을 방당(方塘), 즉 맑고 깊은 네모진 못에 비유한 구절이다. 이는 주희(朱熹)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에 나오는 “반 이랑 네모진 못은 거울처럼 열려 있고, 그 안에서 하늘빛과 구름그림자가 어른거린다〔半畝方塘一鑑開 天光雲影共徘徊〕”는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관서유감」 기구에서 ‘당(塘)’, 승구에서 ‘운(雲)’을 가져와 앞 작품의 당운(塘雲)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인용문 함련의 구절 중 기이한 돌(奇石)의 석(石)은 석정을 말하는 것이 된다. 석정은 「이석정이 찾아와서〔李石亭見訪〕」라는 다른 작품의 제목을 통해 이씨 성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고, 석정은 그의 호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운 또한 석정의 자이거나 석정과 가까운 인물의 호로 추정할 수 있다.

『한시집』 121번째로 수록된 「미석에게 화답하여(和帽石韻)」와 170번째 호설(號說)의 성격을 보이는 산문인 「벗 이미석에게 주다(贈李友帽石)」는 필사된 작품군의 작자 및 배경 인물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여기서 ‘미석(帽石)’은 호(號)이며 그의 본명은 이두하(李斗夏)로 밝혀진다. 다른 작품에 미암(帽巖)이라는 대상도 보이는데 같은 인물로 보인다.²¹⁾

21) 김현국 역(2024), 위의 책, 221면. 「미암의 자녀 원득의 혼인날이 다가와 시를 지어 축하하며〔帽巖兒源得婚日迫近以詩贊賀〕」에서 미암(帽巖)이라는 인물의 자녀로, 원득(源得)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이 산문에 따르면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쓰고 경학을 궁구하였으며”, 시묘살이를 마친 후 “세간에 뜻을 두지 않고 임천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미석이라 자호하였다”고 되어 있다. 미석의 호에 대한 해설은 문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岷)’는 중국의 아미산(峨嵋山)에서 따온 글자이며, 이는 중국 문인 사마천(司馬遷)·양자운(揚子雲)·삼소(三蘇: 蘇洵·蘇軾·蘇轍) 등이 그 산의 기운을 받았다는 고사로 연결된다. 더불어 ‘석(石)’은 질(質)을 상징하며, 문(文)과 질(質)의 조화를 통해 인격과 학문의 이상을 구현한 호로 해석된다.

이 아미산은 단지 중국의 지명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에 실제 존재하는 산이기도 하다. 이는 곧 이두하가 자신의 실제 거주지나 생활공간을 호의 배경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두하는 충남 서산군 대호지면 사성리 출신으로, 도호의숙(道湖義塾) 출신의 유생이며, 1919년 3·1운동 당시 서산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독립 유공자이다. 고종의 국장 때 서울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접한 후 고향에서 적극적으로 항일 운동에 나섰고, 그해 1919년 독립운동 관련 판결 시에 21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²⁾ 이러한 이두하의 이력은 단지 유학적 수양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와 민족 운동에도 깊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윤봉길의 문학과 정신을 형성한 주변 인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윤봉길과 가까운 스승 성주록이나 강치현과 접점이 있고 『한시집』에 이 시가 실려 있다는 점은, 윤봉길이 이러한 문인 선배들의 사상과 문풍을 학습 대상으로 삼았음을 뒷받침해 준다.

그 밖에 강치현이 쓴 「몽산별업(蒙山別業)」(『한시집』 171)에서 유년(1909) 겨울에 면천(沔川)으로부터 몽산(蒙山) 아래 가제동(可濟洞)으

22)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로 옮겨 온 강치헌의 벗 후암(後菴) 이월(李輅)을 비롯하여, 김종윤(金鍾潤)(『임추』 56, 『명추』 10), 김필제(金弼濟)(『한시집』 39), 이재헌(李在憲)(『한시집』 50, 71), 나상용(羅上用)(『한시집』 139, 160), 위당(韋堂)(『한시집』 147, 168), 형제로 추정되는 이요성(李堯性)·이순성(李舜性)의 선고(先考)를 위한 만시(『한시집』 57, 129), 「의령 남병희(南秉熙)의 관례(冠禮)를 위한 서문(宜寧南秉熙冠禮序)」(『한시집』 168), 「조창행(趙昌行)에게 관례(加冠)를 치러주며 서문을 지어 주다[贈趙昌行加冠序]」(『한시집』 169) 등의 관례 서문 작품에서도 작자 및 대상 인물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윤봉길의 창작이 분명한 작품으로는 본명 ‘우의(禹儀)’가 표기된 「강혜정의 생신 운자로 공경히 올리다[敬呈姜蕙亭長壽辰韻]」가 있다.

어지신 분 덕을 베풀어 길이 형통하시라고	仁人種德永享年
봉양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옥연 올립니다	甘旨養心獻玉延
홀륭한 자제 따뜻한 집에서 은혜 보답하니	寶樹烏含風暖院
꽃답던 청춘 맑은 못에서 거북처럼 나이 드셨네	芳年龜老水澄淵
백발노인의 육순 잔치가 곧 다가오는데	白髮六旬旬朔至
노란 국화 피는 구월에 보름달도 둥글겠네	黃花九月月望圓
두 아들 다섯 손자와 즐거운 날을 함께하니	二子五孫同樂日
무궁한 복록은 모두 하늘로부터 받았도다	無窮福祿摠由天

윤봉길의 본명이 적힌 이 시는 그의 자작으로 확실하게 판명할 수 있는 한시이다. 이 작품은 1922년(임술년) 9월에 강혜정의 회갑 운자를 바탕으로 지어진 축수시이며, 윤봉길이 15세에 지은 시로 전해진다. 시의 형식은 칠언율시로, 함련과 경련이 정확히 대를 이루고 운자 배열 또한 엄정하게 준수하였다. 이러한 형식적 정돈은 윤봉길이 어려서부터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한시 창작을 교육받고 고전을 충실히 학습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로 그는 매곡 성주록의 문하에서 사서삼경과 시문 작법을 익힌 바 있다.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는 축하뿐만 아니라 유교적 존장의 윤리와 가족의 화목, 천명(天命)에 따른 수복(壽福) 인식을 고루 담고 있다. “寶樹鳥禽風暖院”이라는 구절은 ‘보수(寶樹)’라는 시어를 통해 훌륭한 자제를 칭송하며, ‘조함(鳥禽)’은 반포지효의 고사를 떠올리게 한다. 즉, 효를 실천하는 자손들에 대한 칭송이자 어른을 존경하는 전통 유가적 가치의 구현이다.

주목할 점은 이 시의 배경과 운자의 성격이다. 이 시는 강혜정의 실제 회갑 시점인 1904년이 아닌, 1922년에 당시 유행한 회갑 운자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곧 이 시는 강혜정 본인의 회갑을 직접 축하한 것이 아니라, 강혜정의 회갑 때 사용된 운자를 차용해 제3자의 회갑을 축하한 것이다.²³⁾ 같은 운자로 지어진 작품들이 다른 시문집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시는 당시 지역 유림 내에서 통용되던 운자 공유 관습과 시모임(詩會) 전통의 일면을 보여준다. 윤봉길이 전통 교육을 통해 한시 작법을 익히고, 실제로 그것을 지역 내 사회적 예절과 연계하여 실천했다는 증거로도 읽힌다. 엄격한 율격과 대구, 유가적 존장의 윤리와 수복 인식이 조화를 이루는 이 작품은 윤봉길이 일찍부터 고전적 수사와 시문 작법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이를 실제 의례적 맥락에서 실천하고자 했음을 증명해 주는 시편이다.

23) 김현국 역(2024), 앞의 책, 279면.

3. 윤봉길 서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고전적 교양의 수용 양상

윤봉길이 남긴 시문집과 한시가 문예적 수련의 결과물이었다면, 그가 여러 시기에 걸쳐 가족과 친지에게 보낸 서찰은 그의 고전적 교양이 삶의 선택과 실천의 방향으로 구체화된 과정이자, 시대와 운명에 대한 고뇌와 결단의 내면을 드러낸 문학적 텍스트이다. 이 장에서는 윤봉길의 서찰을 중심으로, 그의 언어적 표현이 고전적 문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것이 근대적 현실 인식으로 표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²⁴⁾

윤봉길이 남긴 여섯 통의 서찰은 모두 국한문 혼용체로 기록되어 있다. 윤봉길의 서찰은 그저 가족에게 보낸 사적 서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일상적 소통의 목적에 그치지 않고, 유학적 교양을 체화한 언어 감각과 사상적 결단을 서사 구조로 구현해냈다. 서찰은 문학적 형식으로 구획되지 않았음에도, 각각의 서찰은 문장 구성, 수사 전략, 정서 표현에서 그 나름의 문학과 의도를 지닌다. 그 내용은 가족 구성원별로 세심하게 조율되며, 발신 시점의 장소와 정치적 정세, 내면적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자식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1930.3.20)는 평안북도 정주의 여관에서 쓴 글로, 고향을 떠나 상해로 향하던 윤봉길의 초기 심정을 담고 있다. 당시 그는 명목상 ‘매부될 사람을 간택하러 간다’는 이유로 집

24) 3장에서 인용한 서찰의 원문과 번역은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2012), 『매헌 윤봉길전집』 제1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841~860면과 심경호(2024), 「윤의사의 문학에 대하여 — 매헌 윤봉길 서찰 정독」,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구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74~85면을 참고하였다.

을 나섰으나, 그 실제 목적은 독립운동을 위한 망명이었다. 그러나 이 서찰에서는 명시적으로 그런 목적을 드러내지 않고, 그간의 여정과 주변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스스로 아들의 진의를 헤아릴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했다. 곧 이 서찰은 자신의 ‘출가’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윤봉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문의 해명과 정서적인 표현을 절제하며 문장을 구성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猥濫이 탄 思想을 가지고 집 떠난 이 子息은 故鄉을 그리워 멀리 蒼蒼한 南天을 바라보며, 저의 가는 길(目的地)를 中止하였습니다. 男兒의 理智로 目的地를 當到치 못하오니 얼굴 빨가져서 쓰난 연필이 바르르 떨니어 노아습니다.…… 후번에 잘 하지요. 참 나의 성명은 尹奉吉이라고 하시오.

여기서 ‘猥濫이탄 思想’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회적 규범을 어길 수 있다는 행위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했음을 반영한다. ‘目的地를 중지하였다’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지만, 애초의 목적지라는 단언은 그의 행위가 충동적인 일탈이 아닌 신념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정서 하에서 어머니에게 도덕적 신념을 설명해야 하는 아들의 문학적 고뇌로 읽힌다. 이처럼 그는 일기, 독백, 전언, 대화 삽입 등 다양한 수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설계한다.

이 서찰에서 주목할 내용은 말미의 ‘개명 선언’이다. “참 나의 姓名은 尹奉吉이라고 하시오.”라고 한 이 개명 선언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적·정신적 존재로서의 주체 정립 선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정신을 표상하는 공적 명칭을 선택한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윤우의’라는 이름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의 사적 존재를 반영한다면, ‘윤봉길’은 민족과 역사 앞에서의 자각된 주체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이름은 훗날 의거 현장에서 항일 청년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각인된다. 이는 이름을 통해 새로운 도덕 주체가 되고자 한 자기 정립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서찰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올림」(1930.10.18)은 청도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윤봉길의 출가 결정이 충동이나 감정적 분출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해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어머니의 下書를 奉讀하는데 句句節節에 訓戒하신 말삼 全身에 소름이 끼트리고 뺨까지 아르르하여지며 人情음은 이놈의 눈에서도 때 안인 락슈물이 똑똑똑똑 그러고는 잠잠히 안저 經過事를 뒤풀이하여 봅니다. 두 주먹 방바닥을 두다려가며 혼자 恒常부르짖기를 ‘사람은 왜 사느냐 理想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 理想은 무엇이나 目的의 成功者이다. 보라, 풀은 꽃을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萬物主가 되는 나도 이상의 꽃을 피고 目的의 열매가 맺기를 自信하였다. 그리고 우리 靑年時代는 父母의 사랑보다 兄弟의 사랑보다, 妻子의 사랑보다도 一層 더 剛毅한 사랑이 잇을 것을 覺悟하였다. 나는 雨露와 나의 江山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나여간다는 결심이었다. 어머니 말삼대로 지금 집안 事情에 依하며 歸省한다면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만 生覺하여 보아도 할 사업이 업슬 것 갓술다. 저도 客地에 나와 多少 困難을 격은바, 이러저러하는 農村에 많은 憧憬이 잇습시다. 그러나 우리 田畝를 가지고 일하는 家丁 하나 두었스면 아버지께서 넉넉히 하실 터인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經濟的 殺氣가 多角的으로 빚치는 우리 朝鮮人의 生活 安定을 누가 능히 할까요

위 인용문에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이 배어 있다. 아르르, 똑똑, 똑똑 등의 감각 묘사에서 한글 표현의 반복을 통해 내면의 정서를 노출

하면서도, 문장의 전체 구조는 여전히 감정을 통제하는 형식 안에 있다. 이어서 서술한 방을 나올 때 아들을 안아 준 사실을 비롯한 여섯 항목과 이 항목들의 구조적 배열은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 결정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구성이다. 이 문장은 감성에 기댄 설득이 아니라 이성적 자기 결정의 정당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서찰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대목은 윤봉길이 당대 경제적 고통과 가사적 어려움을 역경(逆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행동의 효시로 삼는다는 고백이다. 집안 사정은 “田畠을 가지고 일하는 家丁이 있으면 충분하지만, 우리 조선인의 生活 安定을 누가 능히 하겠습니까”라는 표현은 개인의 윤리적 결정이 사회경제적 현실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는 단지 개인의 이상에 의한 독립운동이 아니라, 시대 감각을 갖춘 현실적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형상화가 갖는 의의가 크다.

아들 모순(模淳)에게 보낸 서찰(「模淳의게」)은 유학적 가족 질서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식의 자율성과 인격 형성을 증시하는 근대적 부모-자식의 관점과 교육 이념의 일면이 드러난다.

父母의 血係로 나서 父母를 떠나서 父母를 爲하여 努力함이 虛言이 아니다. 事實上 父母는 子息의 所有主가 아니요, 子息은 父母의 所有物이 못되는 것은 現代 自由界의 要求하는 바이다. 模순아! 너는 아비가 업슴이 아니다. 너의 아버가 理想의 열매를 따기 爲하여 暫時的 逆行이지 何年 歲月로 永久的 轉展이 안이다. 그리고 모순이는 눈물이 잇스면 그 눈물을 피가 잇스면 그 피를 홀이고 뿌리여가며 不變性的 意志力으로 訓練과 教養할 어머니가 잇지 안니하냐? 어머니 教養으로 成功者를 보건대 西洋으로 万苦 英雄 「나프레온」과 高名의 發明家 「에디슨」, 東洋으로 文學家 孟軻가 있다. 後日에 맞긋한 액슈와 맞긋한 「키스」로 만나자.

부모는 자식의 소유주가 아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선언적 진술은 자식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한 말이다. 곧 유교 질서 속에서 부모의 권위가 가진 기존 관념과는 다른 진술로, 새로운 시대의 인격 교육을 꿈꾸는 윤봉길의 신념과 사상적 지향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윤봉길은 나폴레옹·에디슨·맹자 등의 위인을 언급하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한 아들의 정체성 형성과 방향성을 지도하였다. 이런 방식은 자녀 교육에 있어 유학 전통의 고사 인용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그 대상이 동서양의 역사 인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교육적 이상이 고전적 전통에서 근대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다.

193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쓴 「사랑이 넘치는 永錫에게」(1931.8.15), 「사랑스런 南儀에게」(1931.9.9.) 두 통의 서찰은 동생 남의(南儀)에게 보내는 글로, 시대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족 안에서 서의 도덕적 책임, 가문에 대한 의식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漂流二年에 고달롭 이 몸, 回想컨대 步月立霄는 몇 번이며 看雲成日은 몇 번이었단고 …… 보라, 今番 萬寶山과 三姓堡의 事件을보라. 其原因이 어디로 비롯하였는고. 第一은 뽕뽕 마른 三千里 江山에서 生活의 苦痛과 經濟의 驅逐으로 밀리어 나오게 된 것, 第二는 이 廣大한 天地間 一抔의 地球上에 生存하는그 者들이 自我를 高唱하는 反面에 民族差別의 觀念이다. …… 今日은 祖考의 忌日이라는 印想으로 이른 아침 雨露를 履之하고 悽之惕之하며 追遠感時不勝永慕할 것이다. 그러면 바람에 날리어 온 一粒種의 誠意가 될까 하노라.

윤봉길은 위 인용문에서 만보산 사건과 삼정보 사건을 언급하며, 일제 식민통치의 결과로 조선인들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갈등과 민족차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갈등이 제국주의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조장되고 왜곡되는지를 통찰함으로써 국제 정세에 대한

식견과 시대 인식을 서찰에 담은 한편, 가족 안에서 장손으로서의 책임 또한 의식하는 태도를 보였다. 조고(祖考)의 기일을 기억하며 동생에게 배곡(拜哭)을 부탁하면서도, “이른 아침 우로(雨露)를 밟고 슬퍼하며 감회에 잠길 것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과 감정을 드러내었다. 이 구절은 『예기』 「제의(祭義)」를 인용한 표현으로 『소학』 등의 고전에도 실려 있다.

『예기』나 『소학』에서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거든 군자는 이것을 밟고 반드시 서글픈 마음이 있기 마련이니, 그 추움을 말함이 아니다. 봄에 비와 이슬이 이미 적셔주거든 군자는 이것을 밟고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있어 장차 부모를 뵈을 듯이 여긴다.〔霜露既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既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라고 하였는데, 이는 돌아가신 선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형용한 표현이다. 이 서찰 서두의 “步月立霄는 몇 번이며 看雲成日是 몇 번이었던고”도 마찬가지로, 두보(杜甫)의 「한별(恨別)」 시에서 “고향집 생각하며 달빛 아래 거닐다가 고요한 밤에 잠 못 들고, 아우 그리워하며 구름 보다가 한낮에 조네.〔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라는 구절을 인용한 표현이다.²⁵⁾ 이 같은 고전적 인용의 흔적들은 『순운대편』을 통해 서찰의 문장 구조와 모범이 되는 문체를 참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윤봉길은 상해사변이 한창이던 시기의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1932년 1월 31일자로 「어머님전상서」를 썼다.

놀라시지 마십시오. 너무나 넘너하시지 마십시오. 아서아 하늘에 바
야으로 몽롱한 거먹구름 넓이퍼져 세계도시인 상해에도 덮히엿습니다.
이십구일 오전제시 불허 어지러워웁니다. 고요이 잠자든 쿵쿨코 불무

25) 심경호(2024), 앞의 논문, 84면.

소래는 아이어니하는 우름소래로 변화하였습니다. 비행기 소래는 우루
 룡 대포소래는 팡팡 기관총 소래는 호도독 호도독 콩복어습니다. 이것
 은 민족의 힘의 발현이다. 민족의 힘과 힘이 마주치는 소래입니다. 이
 것은 민족의 힘의 발현입니다.....이후로 또 간간이 통지 올니게사오니
 너머나 넘너 마십시오. 조계내에는 각 경계선에다 철망을 느리고 패병
 못 들어오게 방어하고 잇습니다. 이만 마치웁니다.

서두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너머나 넘너하시지 마십시오.”라고 쓴 구
 절에는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정중한 언어
 와 감정 절제가 담겨 있다. 이처럼 서찰의 첫머리부터 윤봉길은 고전적
 예법에 따라 인사와 안부를 전하되, 평상시보다 더욱 절절하고 신중한
 말투를 사용하였다. 이 서두의 “너머나 넘너하시지 마십시오”와 말미의
 “너머나 넘너 마십시오”를 반복한 구조는 인간적 감정이 배어나며, 그 안
 에서 진실성과 절박함이 함께 전달된다. 이러한 문장은 격식과 감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이자, 윤봉길이 갖고 있던 고전 교양과 현실 감각
 의 접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는 끝이어 상해에서 벌어지는 실시간의 전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묘사한다. 비행기와 기관총 소음을 의성어로 나타낸 구절은 말 그대로
 폭력의 소리를 묘사한 것으로 유교 문체로 대표되는 한문 중심의 수사와
 는 거리가 있지만, 현실의 감각을 그대로 담기 위한 의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윤봉길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속에 서 있는
 주체로서 전쟁을 보고 있다. 그는 “이것은 민족의 힘의 발현이다. 민족의
 힘과 힘이 마주치는 소래입니다”라고 쓰며, 제국주의 간의 충돌이 일반
 적인 전쟁이 아닌 ‘민족의 힘’이 부딪치는 순간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
 는 “세계도시인 상해도 덮히엿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상해라는 공간
 을 일개 도시가 아니라, 민족의 의지가 충돌하는 장소로 서술한다. 이러

한 인식은 한 개인의 감상이나 결의의 수준을 넘는다. 여기에서 윤봉길의 서찰은 단지 현실 상황의 느낌을 전달하는 감상문이 아니라, 민족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의 시대적 사상이 반영된 텍스트로 확장된다.

윤봉길의 서찰은 그가 체득한 고전적 교양이 옛 학문이나 인격 수양의 틀로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윤봉길의 문장은 고전 수사학의 틀을 따르되 그것을 실천의 언어로 전환하고, 가족적 정서의 형식을 빌리되 그 의미를 민족적 결단으로 확장함으로써, 독립운동이라는 공적 실천의 내면 윤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윤봉길의 서찰은 고전 교양의 내면화, 독립 주체로서의 자각, 그리고 현실 인식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근대적 문학 정신의 형성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4. 결론

윤봉길은 상해 홍커우공원 의거로 대표되는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시문과 서찰은 그저 무력 투쟁의 행위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윤봉길이 유학적 교양과 윤리적 사유를 갖춘 지식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윤봉길의 문학적 면모, 특히 전통적 수사와 자아 성찰을 담은 한시와 서찰을 중심으로 그의 내면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윤봉길이 단지 행동가가 아니라 시대적 고뇌를 언어로 표출한 문예적 실천가였다는 점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윤봉길이 남긴 시문 자료로는 『한시집』, 『임추(壬樞)』, 『명추(鳴樞)』, 『옥타(玉唾)』, 『염락(漣洛)』이 존재하며, 각 문집은 전통적 시문

모음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시문집은 작자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윤봉길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자 추정이 가능한 시편과 실제 창작자로 확인된 작품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적 행로를 추적해 볼 수는 있다.

윤봉길의 친필로 알려진 『임추(壬樞)』와 『염락(濂洛)』은 1922년(임술) 15세의 윤봉길이 오치서숙(烏峙書塾)에서 수학하던 시기에 필사한 자료이다. 『임추』에 수록된 시편 중에 창작 주체가 젊은 세대에게 학문과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년의 문인이고, 작품들이 학당이나 서숙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 『임추』라는 표제에 담긴 뜻과 당시 성주록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윤봉길이 자신을 가르친 성주록(成周錄)의 작품을 감상, 소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스스로의 교육 실천과 고전 수양의 자료로 삼기 위해 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추(鳴樞)』는 윤봉길이 17세이던 1924년(갑자)에 성주록의 문하에서 동문들과 학문을 익히던 시절에 필사한 자료로, 「을축년 설날 아침에[乙丑元朝]」 작품을 통해 1925년까지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옥타(玉唾)』는 혜정(蕙亭) 강치헌(姜致憲),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 만초(晩樵) 서만협(徐萬協), 죽초(竹樵) 맹원술(孟元述) 등 지역 노학자들의 시문을 수록하고 있고, '옥타'가 주로 스승이나 선현의 고귀한 문장을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윤봉길이 이들의 작품을 시문 학습과 창작 참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순운대편(鈞雲大篇)』은 1924년 윤봉길이 17세이던 해에 필사한 것으로, 당시 그의 연령과 학습 단계에서 한문 서찰의 형식과 투식을 익히고 실용적 문장을 연습하는 데 사용된 자료로 추정된다. 이는 시문 창작과 더불어 문식 훈련과 실천적 교양 습득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한시집』에는 윤봉길의 자필 서명이 담긴 「강혜정의 생신 운자로 공

경히 올리다」가 실려 있으며, 이는 자작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작품이다. 그는 15세에 이 칠언율시를 창작하면서 전통 한시 형식을 완전히 구사하였고, 효(孝)와 덕(德), 가정의 화목이라는 유가적 세계관을 완결된 시어로 표현해냈다. 이러한 작품은 당대 지역 유림의 사회 전통과 운자 활용 관습을 이해하고 참여한 결과물로, 윤봉길의 전통 교양과 사회적 실천의 접점을 잘 보여준다.

윤봉길의 고전적 문예 기반과 실천 지향적인 문학 태도는 서찰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30년부터 1932년까지 작성된 여섯 통의 서찰은 국한문 혼용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감정의 절제와 논리의 구성이 고전 문장과 현대적 수사법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서찰에서는 출가의 진정성과 사상적 결단을 가족 윤리의 틀 속에서 설득력 있게 서술하고 있으며, 동생과 아들에게 보낸 서찰에서는 부모-형제-자녀 간의 유대와 근대적 인격 교육의 의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개명을 선언하는 대목은 이름을 통한 자기 정체성의 정립이며, 이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명(名)'의 실천적 함의를 근대적 자아의식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윤봉길의 진술은 유교 질서 안에서 새로운 교육 이념을 실현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윤봉길의 문학적 기록은 유교적 전통과 근대적 주체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다. 그의 한시와 서찰은 단지 개별적 문학 텍스트가 아니라, 유학적 도덕성과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아 성찰과 민족 현실에 대한 응답을 아우르는 실천의 언어였다. 그의 시문과 서찰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감각, 공동체를 향한 도덕적 책임, 고전을 통한 자기 수양이라는 윤봉길 문학의 세 축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윤봉길의 문학은 독립운동가의 무장 행동 너머에 존재하는 정신

적·언어적 향거의 형식이었으며, 글과 문장을 통해 스스로를 세우고 공동체와의 연대를 모색했던 실천적 교양인의 자취였다. 윤봉길의 문학을 통해 우리는 고전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이들의 언어이자 실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자료 및 단행본]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40), 『명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6), 『순운대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7), 『염락』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4), 『옥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8), 『임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전시자료(자료번호: A-0035), 『한시집』
김학준(2008), 『(항일 불꽃으로 산화한)매헌 윤봉길』, 동아일보사
김학준(2022), 『매헌 윤봉길 의사 평전: 선구적 농민운동가·독립운동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매헌윤봉길전집편찬위원회 편(2012), 『매헌 윤봉길전집』 1-9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편(2022), 『불멸의 영웅 매헌 윤봉길 의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김현국·김송자 역(2023), 『매헌윤봉길의사 친필: 염락 순운대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김현국 역(2024), 『매헌윤봉길의사 한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진영미·김승일 역(2004), 『시인 윤봉길과 지인의 서정시 340수』, 역사공간.

[연구 논저]

- 고요한(2009), 「윤봉길(尹奉吉)의 충의(忠義) 청소년(靑少年) 교육을 위한 내려티

- 브로서」, 『청소년과 효문화』 제13권,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43~70면.
- 김기엽(2023), 「조선 후기 『濂洛風雅』 讀後詩에 나타난 道學詩의 典範과 詩想의 계승 양상」, 『고전과해석』 40,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33~62면.
- 김상기(2018), 「尹奉吉 上海義學의 국내외적 영향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사연구소, 155~185면.
- 김상기(2018), 「매헌 윤봉길의 修學과정과 사상적 배경」, 『매헌 윤봉길의사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 - 매헌 윤봉길의사 탄신 11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11~36면.
- 김상기(2024), 「윤봉길의 수학과정과 농촌계몽운동」,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 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28~37면
- 김재욱(2016), 「尹奉吉 의거를 제재로 한 중국 현대문학 작품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5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26~258면.
- 김학준(2024),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40~71면.
- 박혜진·박설매(2022), 「중국에서 윤봉길 사건의 주제의식 변천 연구」, 『한국문학논총』 91, 한국문학회, 353~382면
- 심경호(2024), 「윤의사의 문학에 대하여 — 매헌 윤봉길 서찰 정독」,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74~85면.
- 이성섭(2024),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업적」, 『2024년 하계 교원직무연수자료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8~26면.
- 진영미(2004), 「윤봉길 시문집 재고」, 『한문교육논집』 제23권, 한국한문교육학회, 171~185면.

[기타 웹자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자료실: <http://yunbonggildata.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The Poetry Manuscripts of Maeheon Yun Bong-gil and the Reception of Classical Learning in His Letters

Kim, Gi-yeop *

This study examines the literary texts and letters of Maeheon Yun Bong-gil(梅軒 尹奉吉), focusing on his handwritten anthologies and literary works with identifiable authorship, as well as his reception of classical learning as reflected in his personal correspondence. Although Yun Bong-gil is widely remembered as a symbol of anti-Japanese resistance through the Hongkou Park Incident in Shanghai in 1932, research on his early literary formation and educational background remains limited.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explores the significance of Yun's transcription and composition of classical prose and poetry, drawing upon primary sources such as *Hansijip*(漢詩集), *Imchu*(壬樵), *Myeongchu*(鳴樵), *Okta*(玉唾), as well as *Yeomnak*(漣洛) and *Sunundaepyeon*(郇雲大篇).

Imchu was compiled in 1922 during Yun's studies at Ochiseosuk(烏峙書塾). Many of the poems in this anthology are the works of an elderly scholar who urged diligence in study, and they are closely associated with Yun's teacher, Seong Ju-rok(成周錄). This suggests that Yun's transcription of these poems reflected a conscious effort to emulate the stylistic features and literary spirit of his teacher. Similarly, *Okta* contains the writings of local literati, indicating Yun's immersion in a literary community and his engagement with traditional poetic discours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wangwoon University. / sinchay@hanmail.net

Yeomnak and *Sunundaepyeon* are manuscripts comprising the poetry and letters of Song-dynasty Neo-Confucian scholars. These served not only as exercises in classical prose and letter writing but also as means of cultivating Confucian linguistic sensibility. On this classical foundation, Yun composed letters between 1930 and 1932 that expressed a modern self-awareness and national consciousness through refined language. His six extant letters, written in a mixed style of classical Chinese and vernacular Korean, combine traditional rhetorical forms with the emerging modern subjectivity of the time. They vividly convey Yun's declaration of name change, filial piety, familial compassion, and resolve for national independence.

This study sheds light on Yun Bong-gil's reception of classical Confucian culture and literary education, highlighting how these shaped the foundation of his literary thought. It also explores his ethical and practical commitment to the ideals of national independence, thereby underscoring the literary dimension of Yun's revolutionary spirit.

Key Words

Yun Bong-gil, Classical Chinese Poetry, Poetry Manuscript, Letter, Classical Learning, Independence Movement

논문접수일: 2025.6.9., 심사완료일: 2025.6.26., 게재확정일: 2025.6.26.
--